

또, 조선하청노동자에게 손배 협박

현대삼호중 사내하청 노동자 보름째 작업거부 ... 현중 비전 선포 현장서 불법 물량제 폐지 요구

“정말 억울합니다. 직원처럼 지시받고 일했습니다. 생산작업만 하는 데 사장이랍니다.”

장호철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샌딩) 사내하청 노동자가 12월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현대중공업 글로벌 R&D센터 앞에서 연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승리 결의대회’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호철 동지는 “업체 사장에게 4대 보험을 보장해 달라고 하니 개인 사업자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 번호도 없습니다. 업체가 말하는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본 적도 없습니다” 라면서 “저들은 구두 계약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들의 말대로면 블라스팅 작업장에 사장만 38명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회사는 급여에서 3.3% 세금을 떼겁니다” 라고 통렬하게 규탄했다. 장호철 동지는 블라스팅 작업경력이 11년 차이지만 현장에서 막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전남조선하청지회는 이날 대회에서 노조경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와 “현대중공업그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촉구했다.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대회에 앞서 25일부



터 현대중공업 글로벌 R&D센터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불법 물량제 폐지’와 ‘4대 보험 보장’, ‘안전작업’을 요구하며 1박 2일 농성투쟁을 벌였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6일 글로벌 R&D센터 (GRC)에서 50주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그룹의 공식명칭을 HD 현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대삼호중공업 블라스팅 노동자들은 12월 12일부터 “우리는 사장이 아니라 노동자다. 물량제 폐지하고 4대 보험 가입 등 노동자로서 권리를 찾겠다”라며 작업거부에 들어갔다. 현재 업체는 집단 해고 통보와 손해배상 문자로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거로 알려진 가운데, 업체가 이주노동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가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안전교육 등 절차를 확인하자 철수시켰다.

김동성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

에서 “조선소 물량이 많아 배 만들 시간에 우리가 이 추운 날 경기도까지 와서 길바닥에 앉아 농성해야 하는가”라며 “작업거부 보름이 지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이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현대중공업그룹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세웅 노조 광주전남지부 전남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현대삼호중공업이 소식지에 블라스팅 작업자들이 1년에 1억 원을 벌어 간다고 했다”라며 “하청업체는 뭐가 부족해서 더 달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우리가 언제 1억 원을 받았는가. 쓰지도 않은 계약서와 받지도 않은 허황한 근거를 언급하며 양심도 없는 사람들로 몰아가지 말라”라고 분노했다. 김세웅 조합원은 “현대중공업그룹은 현명한 판단으로 현대삼호중공업과 조선소노동자를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와 현중지부 사내하청지회가 투쟁기금을 전달했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블라스팅 작업을 일당제나 시급제로 운영하고 있다. 현대삼호중공업만 위법한 물량제를 유지하고 있다.

“현대차, 한국와이퍼 기획 위장청산 개입 정황”

울산에서 한국와이퍼 투쟁 승리 결의대회 ... “단결과 연대로 끝까지 투쟁한다”

“텐소의 한국와이퍼 납품 물량 불법 대체생산을 승인, 방조, 묵인한 현대차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속노조가 12월 22일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정문에서 개최한 ‘텐소자본 규탄, 구조조정 분쇄, 한국와이퍼 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정민규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흥안산지역지회 한국와이퍼분회 수석부회장이 투쟁사에서 이같이 규탄했다.

정민규 수석부회장은 “한국와이퍼 불법 대체생산으로 만든 제품의 품질이 일본 텐소 와이퍼 직원들이 한국에 상주할 만큼 심각하다고 한다” 라면서 “이런 불량품을 현대차로 납품하고 있다” 라고 폭로했다.

정민규 수석은 “한국와이퍼가 작년에 노동조합 투쟁으로 현대차에 납품할 물량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동조합과 텐소가 보증한 고용합의서에 합의했다고 한다” 라며 “노동조합이 어떤 요구를 해도 꿈쩍 않는 텐소가 현대차를 두려워한다. 그래서 오늘 울산 현대차로 왔다” 라고 밝혔다.

분회와 사측은 ‘청산 시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한다’, ‘불법 대체생산 금지한다’, ‘물량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충고용을 보장한다’ 등의 내용으로 고용합의서를 체결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이태원 참사에서 봤듯이 국민이 죽어 나가는데 국가는 없다.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데 국가는 없다” 라면서 “노동부 등 한국 정부와 텐소 자본이 한국와이퍼 위장청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싸울



수밖에 없다” 라고 강조했다.

안현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현대자동차 사측이 기획청산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라며 “만약 사측이 텐소와 합작해 한국와이퍼 청산에 개입했다면 책임을 분명히 물겠다” 라고 경고했다.

단식농성 46일째인 이규선 금속노조 경기지부장은 대회에서 “텐스코리아는 한국 노동자를 오랫동안 착취하고 이제 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국회 앞에서 오랜 시간 단식하고 있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너무 원통하다” 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규선 지부장은 “경기지부에 오랜 투쟁 과정에서 뼈에 새긴 세 가지 구호가 있다. ‘첫째,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둘째, 힘들 때 힘이 되는 우리가 동지다. 셋째, 함께 가자 맺은 약속 행동으로 실천하자’ 이다” 라면서 “단결과 연대 실천을 담은 이 구호를 새기면서 한국와이퍼 투쟁을 끝까지 벌일 것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규선 지부장과 단식을 시작한 최윤미 한국와이퍼분회장은 단식투쟁 44일째인 12월 20일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단식을 중단하고 녹색병원으로 옮겼다.

최윤미 분회장은 자신 SNS에 “저는 44일 차를 마지막으로 단식 중단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텐소, 현대차 압박 등 전방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힘과 의지로 한국와이퍼 투쟁을 결의합니다” 라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텐소의 한국와이퍼 청산과 불법 대체생산은 현대자동차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며 “원·하청 상생을 입에 달고 사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정작 납품사 죽이기에 동참하는 셈이다” 라고 규탄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와이퍼 노동자 투쟁에 관해 “위장청산을 뒤집고 공장을 정상화하는 투쟁인 동시에 한국 제조업 전반에 퍼져있는 외국계 자본 사업장 노동자의 고용을 지키는 투쟁이다” 라고 강조했다.